

## 『SIEF 실무자협의회』개최

진흥회는 9월 6일 회의실에서 “SIEF 실무자협의회”를 열고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02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협의회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13개사와 후원기관 2개사 등 전시업무 실무책임자 1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SIEF 200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해외바이어 유치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전시회 홍보계획 ▲참가업체 수출촉진방안 ▲중소

기업 참여확대 및 전시품목 확대방안 ▲부대행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진흥회는 국내 유일의 전기산업 전문전시회인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명실상부한 국제전기전시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SIEF 실무자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이 전시회가 국내 중전업계의 수출활성화와 기술개발촉진에 커다란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 통상전시팀)

##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금리 1P%인하

진흥회는 중전기 기술개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융자금리를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9월 9일 이후부터 지원과제에도 적용키로 하였다.

진흥회에서는 기금융자사업을 '98년부터 최저의 금리로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시중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로 기술개발 정책자금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기금활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경영 안정 차원에서 기 융자지원과제를 포함하여 금리를 인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의 경우 2007년까지 17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으로 개발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 업체의 매출액 신장,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98년부터 현재까지 67개과제 180억원을 지원하여 1억불 상당의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가 나타나 국내 중전기 업계의 신기술 개발에 기

여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중전기기 무역역조 개선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3차 지원과제 접수는 10월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전기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지원조건은 최대 5억

원, 금리 4.0%,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기금을 활용코자 하는 업체는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기금지원사업)를 참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기술진흥팀)

## “Elenex Africa 2002” 참가단 파견

진흥회는 국내 중전기기 제조업체 6개사와 함께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되는 『2002 요하네스버그 발전 박람회(Elenex Africa 2002)』에 참가하였다.

중전기기의 잠재시장인 아프리카 지역은 현재까지 국내 업체의 진출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으나 앞으로 현지 발전소 및 산업시설의 확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공략할 수 있으며, 진흥회에서는 지난 2000년 중전기기 시장조사에 이어 2001년에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기초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발전설비, 송배전용품, 산업용 전기기기, 광산업용품 등이 전시되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30개국 190개사가 참가하고, 3만여명이 관람객이 방문하였다고 주최측에서는 발표하였다. 진흥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 전시회에 참가하며, 2002년 월드

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져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비츠로테크, 오성기전, 피엔씨테크, 삼화EOCR, 신성산전, 삼화기연 등 6개 전기기기 제조업체로서, 참가업체들은 각각 회사 제품의 홍보와 수출상담을 동시에 전개할 계획이다.

전기진흥회는 한국전기산업관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중전기기제품의 우수성과 전기산업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며, 오는 2002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는 서울 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2)의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해외업체의 SIEF 2002 참가와 바이어유치, 투자유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5천만 불의 수출상담과 5백만 불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상담 활동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

(문의: 통상전시팀)

## 『중전기기 PL공제보험』 가입문의 쇄도

진흥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PL관련 세미나」개최, 「전기기기 PL전문가 양성교육」등

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50여명의 PL전문가를 배출하는 등 PL법 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꾸준히 하여 왔으며, 또한 이를 토대로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수요처, 설치

및 보수(A/S포함)업체, 소비자간의 원만한 분쟁해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적·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PL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전기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산업으로 국가기간산업인 동시에 산업구조상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범위 및 금액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PL법 시행에 따른 사후 대비책의 일환으로 “중전기기 PL상담센터”를 통해 그 동안 현대해상, LG화재 등 2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중전기기 PL공제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8월28일 이들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PL관련 對업체지원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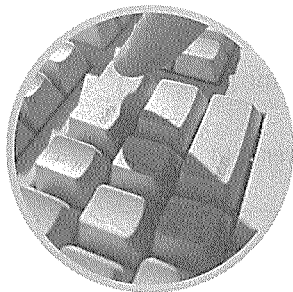
진흥회에서는 “중전기기 PL공제보험”이 전기기기 제조업체의 PL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기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PL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가입에 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중전기기 PL상담센터”에서는 전화상담과 병행하여 주간 보험사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가입 추세를 감안할 경우 그 증가폭은 당초의 가입예상업체 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의처 : 중전기기 PL상담센터 (전화)02-581-8601/4

## ♣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9월1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 ▷ 박병일 차장 : <임> 통상전시팀 팀장 / <면> 기술진흥팀 팀장
- ▷ 이은홍 차장 : <임> PL상담센터 센터장 / <면> 통상전시팀 팀장
- ▷ 강용진 과장 : <임> 기술진흥팀 팀장
- ▷ 이효배 대리 : <임> 기술진흥팀 / <면> 통상전시팀
- ▷ 우병혁 대리 : <임> 통상전시팀 / <면> 기획관리팀



##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